

비은행 확대 외친 농협금융… ‘보험 실적 반등’이 관건

지배주주 순익 75%가 ‘은행’ 몫
두 보험사 비중은 12% 불과해
손보 손해율 ↑…자본비용 급락
생명은 금리하락에 이익 감소

NH농협금융지주가 중·장기 청사진에서 ‘비은행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은행이 책임지는 현 구조를 바꾸려면 보험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이 비은행 수익성 제고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7141억원이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거둔 순이익은 5361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험 부문(NH농협생명 651억·NH농협손보 204억)은 855억원으로 비중이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은행 쏠림’을 해소하려면 두 보험사의 실적 반등이 필수 과제다.

NH농협생명은 올 1분기 순이익 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억원 줄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평가손



NH농협손해보험 사옥

NH농협생명 사옥

/각사

실이 늘면서 이익이 얇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경과조치 후 K-ICS(코스·지급여력비율)은 431.14%로 업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1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2.77%,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7%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실적의 80%가 채권이자·배당 등 안정 운용 수익에서 나와 변동성은 작지만 금리 하락 국면에서도 ALM(자산·부채 관리) 정교화로 마진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과제로 지적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정, 제도변경,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보험산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지만 보험 본연의 영역에서 나름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및 자산부채 매칭 정교화 등을 통해 운용 자산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올 1분기 순이익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0억원 감소했다. 보험비용이 8309억원으로 1년 새 1245억원 증

가해 손해율이 났 영향이 컸다.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165.72%로 전년 대비 152.35%포인트(p) 급락했다. 기준치인 150%에도 근접해 여유가 많지 않다. 금리 하락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농작물 등 고손해율 상품 구조 개선과 장기 위험률 재점검이 시급하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험금·사업비 예산차 관리, 신계약 CSM수익성 증대를 통한 상각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1분기 당기순이익 5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하지만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1.75%로 0.25%p 하락, 원화 예대금리차도 1.99%로 0.37%p 축소됐다. 대손상각비가 2322억원으로 838억원 증가해 총당금 부담이 커졌고 고정이자여신비용은 0.56%로 0.17%p 뛰어 잠재 부실경보도 커졌다. 수익 증가는 이자이익 증가 덕분이지만 질적 지표는 악화된 셈이다.

NH농협은행은 총자산순이익률(ROA) 0.51%, 자기자본이익률(ROE) 8.84%로 겉보기 수익성은 두 보험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구조는 다르다. 은행 이익은 NIM·수수료 수익에 좌우돼 경기 및 금리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반면 보험 ROA는 언더라이팅·투자수익 복합 구조로, 손해율 및 자본규제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NH농협은행의 NIM 추가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 부문의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이 더 절실해진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비은행 수익성 제고를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앞서 이찬우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농협금융 중장기전략 수립’ 컨설팅 착수 보고회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안으로 “비은행 부문 수익성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전체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보험 양사의 실질적인 수익성 회복과 자본효율 제고가 절대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NH농협금융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면밀히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 농협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공급 가뭄에 올해 아파트 입주 10년래 최저

전국 집들이 예정 물량 28.7만 가구
광주·부산·세종, 절반 이하 급감
신규 분양 부진 여파 2~3년 지속

공급 가뭄으로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이 줄어든 결과다. 특히 부산과 세종, 광주 등은 입주물량이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서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8만7432가구다. 지난 2022년(33만6199가구) 대비 15% 감소했다.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아파트 분양

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올해 입주 가뭄으로 이어졌다.

시·도별로는 광주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4820가구에 불과해 2022년 1만3716가구에서 65%나 급감했다. 부산 역시 1만1418가구로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세종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1840가구로 2022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경기(-3만9813가구)와 인천(-2만477가구)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분양물량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전국적인 입주 가뭄이 앞으로 2~3년 이상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와 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산의 물량 감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침체의 영향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 이후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수요층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수요가 충분한데 새 아파트 입주는 올해부터 수년간 기록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제공 가능해진다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내년 7월부터 원큐지갑서 제공

하나은행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손님은 하나원큐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4일 “이번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으로 손님의 디지털 편의성을 한층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나원큐를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디지털 노후와 안전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기업은행, 미래전략산업 퓨리오사AI에 100억 투자

‘IBK벤처대출’ 통해 유동성 공백 해소
기술혁신·창업 생태계 발전 지속 지원

IBK기업은행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인공지능(AI)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정부의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발맞춰 첨단 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AI반도체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퓨리오사AI는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의 인수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AI칩 개발 및 양산을



IBK기업은행

추진하며 국내 기술 자립의 상징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퓨리오사AI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창업초기에 인식하고 창업대출, 모험자본 투자, 기술금융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금융권 최초의 투융자 복합

상품인 ‘IBK벤처대출’을 통해 제품 양산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유동성 공백을 해소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번 퓨리오사AI 투자 유치에는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모집됐으며, 기업은행의 전략적 투자는 K-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혁신금융그룹 부행장은 “제2, 제3의 퓨리오사AI와 같은 우수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경 7000억 투입…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저소득 1억이하 채무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20년 확대… 9월부터 적용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7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지원한다. 채무 1억원 미만인 저소득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말 까지 약 13만7000명(22조 1000억원)이 신청했고, 약 8만명(6조

5000억원)의 채무를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 경제로 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생의 길인 만큼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추경 7000억원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다.

감면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